

국어 안맺음씨끝의 문법범주와 체계 (試案)

— 시제, 상, 서법을 중심으로 —

金 宗 泰

차 례

- | | |
|---------------------------|------------------------|
| 一. 서 론 | 2.4 국어의 서법범주 |
| 1.1 연구목적·연구방법 | 2.5 형태소의 결합과 범주 역할 분담 |
| 1.2 선행연구에 대한 개관 | ○ 이른바 '단속상'(-었었-)에 대하여 |
| 1.3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문제점 | ○ 형태소의 결합과 범주 역할 분담 양상 |
| 二. 본 론 | 三. 결 론 |
| 2.1 형태소의 확정 ('느/φ'를 중심으로) | 3.1 나머지 문제·요약 |
| 2.2 국어의 시제범주 | ※ 참고 문헌 |
| 2.3 국어의 상범주 | |

一. 서 론

1.1. 문법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 현상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기술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문법 연구자는 언어 현상을 지배하거나 언어를 변화시키는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 속에는 첫째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언어능력(chomsky의 이른바 competence)에 비추어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해야 한다는 타당성의 요건과, 언어 현상을 기술함으로써 그 언어를 지배하는 원리를 일목요연

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간결성의 요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하나의 언어 현상은 수많은 통시적, 공시적 요인이 상호 작용한 필연적 인과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복합적 요인의 결과물인 언어 현상을 앞에 놓은 문법 연구자들에게는 자기가 제시할 원리가 갖추어야 할 타당성과 간결성이라는 두 가지의 필수적 요건이 이율배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다.

어떠한 원리를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의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일은 타당성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지만, 기술 그 자체가 언어 현상의 나열에 그칠 때,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description이 아니라 transcription에 불과하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하나의 자료일 뿐 문법의 기술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중세나 근세의 언어를 기술한 많은 작업들이 한 시대의 언어 현상을 공시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것이 단순한 나열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한 시대의 언어의 모습이 다음 시대에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 필연적 원리를 발견하는 데에는 실패한 경우를 흔히 보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언어 현상의 공시적 기술로 나타난 결과가 너무나 복잡해, 자료로서의 가치는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한 시대의 문법이 갖추어야 할 체계나 일관된 논리의 축(軸)을 제시하는 데에는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가상하고 그것에 따라서 언어 현상을 설명(explanation)하려 할 때에는, 자칫하면 학문으로서의 체계나 설명의 편의라는 명분 때문에 언중의 언어 직관에 부합되지 않는 기술을 강행하는 수가 있다. 가령 통시적 언어 변화의 부산물까지도 일관된 공시적 원리 하나로 설명하려 했던 변형음운론은 이른바 '추상성'이라는 무리함을 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이율배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설명에 가장

적절한 원리를 찾아내는 일이 일차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때, 이런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불거지는 것 중의 하나가 국어 시제(tense)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이라 할 것이다.

최광옥의 「대한문전」(1908) 이래 오늘날까지 한 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시제 문제가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¹⁾, 많은 사람들에게 이의없이 수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제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간결성과 타당성이 요구하는 이러한 이율배반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초기의 전통문법적 연구에서 보였던 바와 같은 서양문법의 막연한 모방이나, 영어 독일어 등 인구어를 대상으로 한 시제 관련 이론에 바탕을 둔 국어 시제의 설명이 국어 화자의 언어 직관에 일치할 까닭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스무 가지가 넘는 시제의 나열을 두고 간결성을 갖춘 정리된 문법으로 보기도 어려운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제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하나의 가상된 체계를 수립하고, 이데 따라서 현실 언어를 검증하면서 원리를 언어 현실에 맞게 조금씩 수정함으로써 점차로 그 타당성을 높여가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우리가 최초에 가상했던 체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수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간결성의 최대치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체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생각 위에서 필자 나름의 검증 결과를 거쳐 수립한 국어의 안맺음씨끝 체계를 제시하려 한다. 애초에는 국어의 시제표지 문법형태소인 안맺음씨끝을 중심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시제를 합리적으로 체계화해 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연구 검증 과정을 통해서 국어의 안맺음씨끝과 관련된 문법범주는 시제(tense), 상(aspect), 시

1) 남기심(1976)에서의 시제에 관한 개관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법(modality)의 세 가지임을 알게 되었다. 또, 이들 각각의 문법범주는, 안맺음씨끝과 관련을 맺고 있는 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만일 이들 중의 어느 한 범주만을 따로 떼어내서 다른 두 범주와 무관한 위치에서 기술할 경우,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선행연구들이 맴돌던 테두리를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리에만 집착한 오류를 범하거나, 체계 기술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본고의 작업은 국어 안맺음씨끝에 관련된 세 가지의 문법범주를 수립하고 이들 세 범주가 어떠한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안맺음씨끝에 의하여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가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국어의 안맺음씨끝들이 각각의 범주 안에서 어떠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안맺음씨끝의 결합을 통하여 이들이 어떠한 범주상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과정을 밝게 될 것이다.

1.2.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우리는 안맺음씨끝 및 이와 관련을 가진 문법범주의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²⁾

첫째는 안맺음씨끝과 관련하여 국어에는 몇 가지의 문법범주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시제(tense)
- ② 시제, 상(aspect)
- ③ 상·서법(modality)³⁾
- ④ 시상(tense-aspect)
- ⑤ 법
- ⑥ 시제, 상, 서법

2) 여기에서 다루는 두 가지 문제는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 깊은 관련을 가진 것만을 뽑은 것이다.

3) 맺음씨끝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서법은 본고의 성격상 논외로 칠 수 있을 것이다.

①의 견해는 우리 문법 연구의 초기에 나타난 것으로서, 이는 아마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자연 시간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에 수반하여 당대 서구 문법의 모방에서 이루어진 문법 의식에 바탕을 둔 견해인 듯하다.

②는 국어의 안맺음씨끝을 시제라는 하나의 문법범주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의식이 싹트면서 상(aspect)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자리잡게 된 견해인 듯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상(相)이라는 용어를 국어 문법에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나진석(1971)에서부터인 것 같으나 상 자체에 대한 인식은 이미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에서도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③의 견해는 국어에서 문법범주로서의 시제를 부인하는 주장으로서, 우리가 시제라고 알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상이기 때문에 시제개념은 상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가 제기될 당시에는 시제체제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가령 안맺음씨끝의 의미가 이에 호응하는 시간부사의 의미와 상충하는 모순을 시제로써는 설명할 수 없으나 상이나 서법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이른바 단속상(-었었/았었-)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논의가 보여주듯이 시제를 부인하는 데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④의 견해는 국어 안맺음씨끝이 시제형태소로서의 기능과 상형태소로서의 기능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국어에서는 시제와 상이 별개의 문법범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화상태의 하나의 문법범주로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⑤의 견해는 시제, 상, 서법 등으로 분리하는 태도를 지나친 서구 이론 일변도의 것으로 보고 국어를 기술하는 데에는 이 세 가지 문법범주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른 기술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진 범주 내용을 '때때김범'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대단히 복잡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⑥의 견해는 세 가지의 문법범주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또 국어의 안맺음씨끝은 이 세 가지 문법범주 안에서 각각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견해이다. 본고에서는 이 견해에 따라서 논의를 전개한다.

둘째번의 문제는, 국어의 시제, 상 등의 문법범주와 관련된 안맺음씨끝은 몇 가지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초점은 이른바 현재시제의 '-느-'(일부 견해로는 '-는-')를 안맺음씨끝으로 인정하느냐 또는, 맺음씨끝의 일부로 보아서 안맺음씨끝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있다. 이에 관한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먹다'를 「보기」로 함)

- ① 먹+는다(안맺음씨끝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② 먹+는+다('는-'을 안맺음씨끝으로 봄)
- ③ 먹+느+는다('느-'를 안맺음씨끝으로 인정함)

이들 각각의 주장은 공시적 관점에서 현대어에 바탕을 두고 이른바 통합관계(syntagmatic relation)와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에 의하여 각각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으나, 결과는 그 어느 것도 공시적, 평면적 차원에서 완전한 타당성을 가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③의 견해를 취하였는데, 그 자세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1.3. 위와 같은 많은 연구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어의 시제, 상, 서법에 관련된 문제가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근원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첫째는, 문법범주의 설정 여부에 대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는 요건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의 문법범주에 의하여 표현되는 현실을 언중이 의식하고 있고, 그러한 범주의 내용을 체계적, 대립적으로 나타내는 문법형태소가 존재한다면, 일단은 그 언어에는 그러한 문법범주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 a. 철수가 밥을 먹었다.
- b. 철수가 밥을 먹는다.

- (2) a. 철수가 밥을 먹는다.
 b. 철수가 밥을 먹겠다.
 c. 철수가 밥을 먹더라.

‘철수가 밥을 먹는 행위’에 대하여, 언중이 (1) a를 과거의 사실에 대한 진술로, (1) b를 현재(또는 비과거)의 사실에 대한 진술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과거와 현재(또는 비과거)의 의미가 ‘-었-’과 ‘-느-’라는 두 개의 문법형태소에 의하여 대립적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면, 국어에는 과거와 현재(또는 비과거)의 대립을 내용으로 하는 문법범주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

또, 언중이 (1) a를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한 진술로, (1) b를 아직 행위가 끝나지 않은(또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완료와 미완료(또는 행위 지속)가 ‘-었-’과 ‘-느-’라는 두 개의 문법형태소에 의하여 체계적 대립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국어에는 역시 완료와 미완료(또는 행위지속)의 대립을 내용으로 하는 문법범주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위와 똑같은 이유로 ‘철수가 밥을 먹는 행위에 대하여 (2) a를 단정적 태도의 표현, (2) b를 추측하는 태도의 표현, (2) c를 돌이켜 생각하는 태도(회상)의 표현이라고 언중이 알고 있고, 그러한 태도들이 각각 문법형태소 ‘-느’, ‘-겠-’, ‘-더-’에 의하여 대립적 체계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국어에는 단정, 추측, 회상 등 행위에 대한 화자의 태도의 대립을 내용으로 가진 문법범주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어에서 시제, 상, 서법 중 어느 범주이든지 부정하는 주장은 그 범주 내용에 대한 언중의 인식을 부정하거나, 그 범주 안의 문법형태소의 의미 대립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범주 자체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함을 들 수 있다.

4) 본고에서는 시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과거, 현재(비과거) 따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어의 시제 체계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자연 시간 현상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종래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령, 시제와 상은 전혀 별개의 문법범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문법범주를 설정한 견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시제는 행위(상태)와 어떤 상정된 시간과의⁵⁾ 전후개념, 즉 시간적 거리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대하여, 상은 행위의 내부, 즉 행위의 발단에서부터 완료까지의 수행상태나 행위가 끝난 뒤의 결과 등에 대한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⁶⁾ 그러므로 하나의 문법형태소가 어떤 문법범주의 의미를 수행하는지 불분명하다(ambiguous)는 것과 두 가지 이상의 범주가 미분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즉, 국어에서는 하나의 문법형태소가 두 개 이상의 문법범주에서, 동일한 형태를 취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의 문법적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발화 상황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그 문법형태소가 어느 쪽의 문법범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범주 자체의 통합을 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a. 꽃이 피었다.

b. 지금 보다시피 이 정원에 꽃이 피었다.

c. 작년 어느날 이 정원에 꽃이 피었다.

(3) b는 ‘꽃이 피는’ 행위가 끝나고 그 결과가 눈 앞에 나타나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3) b의 ‘-었-’은 상의 범주에 속하는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3) c의 경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꽃이 피는’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때의 ‘-었-’은 ‘꽃이 핀’ 행위(사건)와 발화가 이루어진 두 시점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표현하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다, 즉 (3) c의 ‘-었-’은 시제의 범주에 속하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

5) 보통은 발화시간이다.

6) Comrie (1976)는 시제를 상황(situation)의 시간과 어떤 다른 시간(보통은 발화시간)을 관련 짓는 것으로 보고, 상은 상황의 내적 시간적 구성요소를 보는 관점이라고 파악하여 양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pp.1~3 ref.

는 것이다. 그러나 (3) a의 경우는 발화상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때의 ‘-었-’이 (3) b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3) c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 a의 ‘-었-’이 시제와 상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법범주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3) a와 같은 발화라도 실제로는 어떤 구체적 발화 상황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의 명시 여부에 상관없이, 화자나 청자는 아무런 혼란이 없이 상이나 시제로 분별해서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제와, 상과, 서법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범주임을 재검점해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시상(tense-aspect)과 같은 범주는 성립되기 어려움을 알게 된다. 또, ‘때매감법’과 같은 용어 속에 시제, 상, 서법을 포괄하려는 견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문법의 기술이 복잡성을 면할 수 없는 필연적 이유도 밝혀질 것이며, 이른바 단속상(-았었-)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과 시제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범주 자체의 성격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동일한 문법범주 안에서 서로 배타적(exclusive)인 문법 의미나 그 문법 의미를 나타내는 두 문법형태소는 공존(co-occurrence)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미래시제’(노대규 1979)와 같은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째는, 동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 (4) a. 꽃이 피고 있다.(피는 중이다)
- b. 아이가 울고 있다.(우는 중이다)
- *c. 그 사람은 암에 걸려 죽고 있다.(*죽는 중이다)
- d. 그 사람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 (5) a. 꽃이 피어 있다.
- *b. 아이가 울어 있다.
- c. 그 사람이 죽어 있다.

위의 (4), (5)에서 동사 ‘피다’, ‘울다’, ‘죽다’는 다같은 자동사이다. 그런데 (4) a, b, d는 가능한데 (4) c의 쓰임은 왜 어색하거나 불가능한가? 또 (5) a, c는 쓰이는데 (5) b는 왜 쓰이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각 동사가 그 자체의 의미 요소로서 가지고 있는 상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사 자체의 상적 특성은 이들 동사에 결합되는 문법형태소의 결합제약을 해명하거나, 또는 그 문법형태소가 속하는 문법범주를 알아내는 데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언중이 어떤 동사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동사의 상적 특성을 안다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제나 상에 관한 논의는 동사 자체의 상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6) a. 꽃이 피었다.

b. 그들은 서로 싸웠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6) a의 ‘-었-’은 시제 또는 상 중에서 어느 하나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6) b의 ‘-었-’은 반드시 시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러한 기능의 차이는 ‘피다’, ‘싸우다’가 가지는 상적 특성의 차이 때문이다. 동사 자체가 가지는 상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어의 안맺음씨끝이나 시제를 취급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작업을 보지 못하였다.

필자는 위에서 제기한 몇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전체 위에서 논의를 전개해 가고자 한다.

첫째, 국어에는 안맺음씨끝과 관련하여 시제, 상, 서법의 세 가지 문법범주가 있다. 따라서 안맺음씨끝의 의미 분석을 통하여 문법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제된 세 가지의 문법범주 안에서 각각의 안맺음씨끝이 차지하는 의미 기능을 파악하고 확인해 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둘째, 각각의 안맺음씨끝은 그것이 속하는 범주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가령, ‘-느-’의 의미는 그것이 상의 범주에 속하는 형태소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행위지속’으로, 서법의 범주에 속하는 형태

소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단정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째, 동일한 범주 안에서 상호 배타적인 문법 의미를 가진 두 문법형태소는 공존(co-occurrence)하거나 중복되어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었겠-'과 같은 형태소의 결합은 각각의 -었-과 '-겠-'이 서로 동일한 범주 안에 있지 않다고 본다. 또 '-있었-'과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문법범주에 속하는 두 개의 '-었-'이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수행하면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네째, 공시적 언어 현상을 기술할 때에도, 합리성을 얻기 위하여, 통시적 언어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현재소 '-느-'의 설정과 관련하여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또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시적 고찰에서 얻은 결과를 공시적 언어 현상의 해명에 반영하였다.

二. 본 론

2.1 문법범주별로 안맺음씨끝의 의미를 고찰하기 전에 시제, 상, 서법과 관련된 국어의 안맺음씨끝의 목록(inventory)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문제의 초점은 '-느-'를 안맺음씨끝의 한 항목으로 설정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이와 관련된 견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견해 I〉 먹+는다(오+는다), 먹+느냐(오+느냐)
 먹+었+다(오+았+다), 먹+었+느냐(오+았+느냐)
 먹+고(오+고)
 먹+었+고(오+았+고)

견해 I 은 서술형 맺음씨끝을 '-는다/-는다', '-다'로 설정하여 '-느-'를 안맺음씨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견해의 강점은 '-느-'를 안맺음씨끝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불가능한 어형의 생성을 막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즉 '-느-'를 안맺음씨끝으로 인정하고 보

면 *먹느냐(‘먹었느냐’와의 계열관계), *먹느고(‘먹었고’와의 계열관계)가 왜 불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서술형의 맺음씨끝의 종류가 많아짐으로써 그 각각의 쓰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복잡성은 있으나 종결형(마침법)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형형에서 ‘먹+느+ㄴ’(먹는)과 ‘먹+ㅅ+ㄴ’(먹은)의 의미 대립을 통해서 ‘-느-’의 문법적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안맺음씨끝으로서의 ‘-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종결형에서의 안맺음씨끝체계와 관형형에서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난점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는 공식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통시적 맥락 위에서도 해명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견해 Ⅱ〉 먹+는+다(오+ㄴ+다) 먹+느냐(오+느냐)
 먹+였+다(오+았+다) 먹+였+느냐(오+았+느냐)
 먹+고(오+고)
 먹+였+고(오+았+고)

견해 Ⅱ는 ‘-는-’과 ‘-ㄴ-’을 음운환경에 의한 변이형태로 보고 하나의 안맺음씨끝으로 인정한 견해이다. 이것은 서술형 맺음씨끝을 ‘-다-’로 통일시킬 수 있으며 ‘먹+였+다’형과의 계열관계에서 타당성을 가진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먹자’, ‘먹어라’, ‘먹느냐’와 같이 서술형이 아닌 종결어미 앞이나, ‘먹고’, ‘먹으니’와 같이 연결어미 앞에서는 ‘-는/ㄴ-’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안맺음씨끝 ‘-는/ㄴ-’은 서술형 맺음씨끝 ‘-다’앞에서만 나타난다’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므로 여전히 문제점은 남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종결형에서 ‘-는/ㄴ-’이 하나의 형태소로서 변이형태의 관계를 유지함에 반하여 관형형에서는 ‘오+는’(오는)과 ‘오+ㄴ’(온)의 의미가 다르므로 ‘-는-’과 ‘-ㄴ-’이 변이형태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 견해는 맺음씨끝의 형태를 통일하려는 데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 안맺음씨끝에 초점을 맞춘 관점에서는 위의 견해 I 과 같은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견해Ⅲ〉 먹+ㄴ+ㄴ다(오+ ϕ +ㄴ다) 먹+ ϕ +ㄴ나(오+ ϕ +ㄴ나)
 먹+었+다 (오+았+다) 먹+었+ㄴ나(오+았+ㄴ나)
 먹+ ϕ +고 (오+ ϕ +고)
 먹+었+고 (오+았+고)

이 견해는 ‘-ㄴ-’와 ‘- ϕ -’를 변이형태로 파악하고 서술형 맺음씨끝을 ‘-다/ㄴ다’로 파악한 견해이다. 이 주장은 안맺음씨끝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는데 ‘먹+ ϕ +고’ 등의 어형이 ‘먹+었+고’ 등과의 계열관계에서 타당성있게 설명될 수 있으므로 견해Ⅰ의 강점을 가지면서 견해Ⅱ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볼 때 관형형에서는 ‘오+ㄴ+ㄴ’과 ‘오+ ϕ +ㄴ’의 의미가 다르므로 ‘-ㄴ-’와 ‘- ϕ -’가 변이형태의 관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결형과 관형형에서의 안맺음씨끝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Ⅰ과 같은 약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시적 차원에서 ‘먹는다’와 ‘온다’의 형태소를 합리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어느 것도 계열관계나 통합관계라는 점에서 완벽하지가 못하다. 필자는 위의 견해들 중에서 견해Ⅲ을 취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견해Ⅲ이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안맺음씨끝의 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정리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형형에서의 ‘-ㄴ-’와 ‘- ϕ -’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어형들과의 계열관계를 고려할 때 가장 높은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는 견해Ⅲ이 가지고 있는 문제(관형형에서 ‘-ㄴ-’와 ‘- ϕ -’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그것을 통시적 맥락에서 고찰했을 때 해명이 가능하지만 견해Ⅰ, Ⅱ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것을 해명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위의 형태소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시적 차원에서 만족할만한 설명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대부분 각각의 언어 현상(예를 들면 종결형과 관형형에서의 안맺음씨끝)이 서로 다른 통시적 맥락 위에 있기 때문인 수가 많다. 이런 경우 우리는 공시적 언어 현상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

여 통시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어 종결형과 관형형에서의 안맺음씨끝들은 각각 서로 다른 통시적 맥락 위에 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시간적 단면 위에서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원리에만 치중한 또 하나의 불합리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종결형과 관형형에서 ‘-느-’와 ‘-ㅅ-’의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공시적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지만 통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변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결형과 관형형에서의 안맺음씨끝이 그 현재와 의미에서 일치되어 있던 15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변화 추세를 간략히 살펴본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자료는 낱말만으로 하고 맺음씨끝은 ‘-다’형에 국한함)⁷⁾

〈15세기〉

막느다 (가느다)	:막+느+다(가+느+다)	서술형
이긔여다(일허다)	:이긔+어+다(일+어+다)	
막느다(오느다)	:막+느+ㄴ다(오+느+ㄴ다)	의문형
온다	:오+ㅅ+ㄴ다	
오느	:오+느+ㄴ	관형형
온	:오+ㅅ+ㄴ	

우리는 위의 어형 분석을 통해서 오늘날보다 훨씬 더 규칙적인 안맺음씨끝과 맺음씨끝의 체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서술형 맺음씨끝은 ‘-다’, 의문형 맺음씨끝은 ‘-ㄴ다’, 관형형 맺음씨끝은 ‘-ㄴ-’으로 보았을 때, 안맺음씨끝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⁸⁾

7) 남광우(1971)를 참고로 하였음.

8) 의문형 ‘올다’와 관형형 ‘올’은 본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이것은 서법(modality)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느-’의 형태소 확립을 위한 본 논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후고로 미룬다. 15C의 안맺음씨끝체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시제, 상 결합되는 맺음씨끝	종 결 형		관형형
	서술형	의문형	
현재, 행위지속	-ㄴ-	-ㄴ-	-ㄴ-
과거, 행위완료(결과지속)	-아/어-, -ㅁ-	-아/어-, -ㅁ-	-ㅁ-

‘-ㄴ-’와 ‘-아/어-’, ‘-ㅁ-’의 의미 대립은 그 결합하는 맺음씨끝에 상관 없이 아주 규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⁹⁾

그러나 이렇게 정연한 체계는,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완료, 과거를 나타내는 안맺음씨끝 ‘-았/었-’이 하나의 형태소로서의 확실한 지위를 확립하게 됨에 따라 종결형에서의 ‘-아/어-’형이 자료상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줄고, 1987). 즉 ‘-ㄴ다’형을 취하는 의문형에서 ‘-ㄴ/-느-’는 맺음씨끝의 일부로 녹아서 ‘-느/-는다’형의 맺음씨끝을 설정해야만 해명이 가능하게 되는 체계로 바뀐 것이다.

〈17세기〉

막는다(가는다)	:막+ㄴ+다(가+ㄴ+다)	서술형
드렀다	:들+었+다	
막+느다(가느다)	:막+ㅁ+는다(가+ㅁ+는다)	의문형
드렀는다	:들+었+는다	
오느	:오+ㄴ+ㄴ	관형형
온	:오+ㅁ+ㄴ	

‘드렀는다’가 존재하는 이상 ‘막는다’를 15세기처럼 ‘막+ㄴ+ㄴ다’로 분석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당시의 공시언어의 체계를 고려할 때, 우선 계열관계에 맞지 않는 것이다. 종결형과 관형형에서의 ‘-ㅁ-’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따라서 양자의 안맺음씨끝이 형태면에서 일관성을 잃기 시작

9) 필자는 ‘이귀여다’와 ‘이귀니라’의 차이를 현대어의 ‘이기었다’, ‘이긴 것이다’의 차이와 같은 것으로 보고, ‘-아/어-’와 현대어의 ‘-았/었-’의 의미가 같은 것으로 파악한 논지를 편 적이 있다. 따라서, 15세기에 ‘-아/어-’는 서술종결형 맺음씨끝에 결합되는 안맺음씨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줄고(1985) 참조

한 것은 이때부터다.

이 시기의 안맺음씨끝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이다.

시제,상 결합되는 맺음씨끝	종 결 형		관형형
	서술형	의문형	
현재, 행위지속	-ㄴ/느-	-ㄹ-	-ㄴ/느-
과거, 행위완료(결과지속)	-았/었-	-았/었-	-ㄹ-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종결형의 맺음씨끝의 어형이 정리 정착되는 시기를 맞이함으로써 (서술형; ‘-다’, 의문형; ‘-냐’, ‘-가’, 명령형; ‘-라’, 청유형; ‘-자’ 따위) 의문형에서의 ‘-는다/-는다’형이 사라지고 앞시대의 의문형 맺음씨끝이었던 ‘-ㄴ다’형이 서술형 맺음씨끝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거의 오늘날과 같은 안맺음씨끝과 맺음씨끝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는다/-는다’형의 소멸과 ‘-ㄴ다’형의 재등장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명의록언해(1777)에까지 이 두 어형이 모두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변화는 적어도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완결되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즉 ‘-ㄴ다’형이 서술형으로 쓰인 것은 내포문(원형 내포문)에서부터인데 명의록언해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초기적 성격을 보이는 자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주문에서의 ‘-ㄴ다’형이 서술형으로 쓰인 예는 없음) 오늘날과 같은 맺음씨끝과 안맺음씨끝의 체계가 확립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⁰⁾

(7) a. 네 다만 후경만 알고 다른 사물은 아지 못ᄃ는다.

b. 네 형의게 편지ᄃᆞᆫ 샤를 네 아는다.

(8) a. 동궁이 미ᄃᆞᆫ야 이 골의 드려오신다 ᄃ니,

b. 모모인은 다 이명관과 밋 아모 시관의 용정ᄃᆞᆫ 재라 ᄃ는다 ᄃ니,

10) 실제로 이형태는 16C초부터 등장한다 ᄃ는다 > ᄃ는다 형은 *의 삭제로 음절 축약이 일어난 것이다. 이 어형이 내포문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허용(1987, p.19)에 잘 설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변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즉 국어의 안맺음씨끝 체계는 종결형에서, ‘-느-’(현재, 지속) : ‘-아/어-’(과거, 완료)의 대립에서 -느/φ-(현재, 지속) : ‘-았/었-’(과거, 완료)의 대립으로 변천하였다. 그러나 관형형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컨대, 종결형과 관형형에서의 안맺음씨끝은 각자가 서로 다른 동시적 맥락 위에 있으므로 공시적으로 이들의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종결형과 관형형에서의 안맺음씨끝체계는 별개로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우선 종결형의 안맺음씨끝의 목록을 ‘-느/φ-’, ‘-았/었-’, ‘-겠-’, ‘-더-’의 넷으로 확정하고자 한다.

2.2 (9) a. 그 사람은 어제 여기에 왔다.

b. 그 사람이 지금(*어제) 여기에 온다.

c. 그 사람이 내일(*어제) 여기에 오겠다.

d. 그 사람이 내일 여기에 온다.

e.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오겠다.

f. 넌 내일 나한테 죽었다.

과거의 우리 문법은 지난적(과거), 이적(현재), 올적(미래)의 3원적 시제 체계를 수립했으며, (9) a,b,c는 이러한 시제 체계의 수립을 뒷받침하는 예들이다. 그러나, 형태소 ‘-겠-’이 본질적으로 시제 표지형태소가 아니라 추측(추단, 추량, 가능성, 개연성, 의지) 따위의 의미로 파악되는 서법표지형태소(modal)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국어에는 미래 시제가 없고, 다만 과거, 비과거의 2원적 시제의 대립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성립되었다. (9) d,e는 시간부사와 안맺음씨끝의 호응을 통해서 과거의 3원적 시제 체계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서 알맞은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9)f와 같은 예는 과거시제표지형태소 ‘-었-’이, 시간부사(내일)와의 호응관계 때문에, 시제형태소로서의 지위를 의심받게 만들었으며, (9) d,e와 더불어 문법범주로서의 국어의 시제 체계를 부인하는 주장에 좋은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 ‘-었겠다’, ‘-었더라’, ‘-었겠더라’ 등과 같

은 안팎을 씨끝의 결합형을 다루면서 이른바 ‘상대시제’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국어의 시제와 관련된 논의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언중의 시제에 대한 인식이, 학자들이 기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즉, 언중의 언어 능력 속에는 학자들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시제 표현장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위의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국어의 시제 체계는 발화시점을 중심으로 한 과거, 현재, 미래의 자연 시간 개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한 전후개념의 바탕 위에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이러한 전후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시제 표현 장치를 더욱 간단히 기술하기 위하여 지각(perception)의 시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상태에 대하여 말하거나 글로 진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고¹¹⁾ 화자나 그 행위를 지각하는 시각, 즉 보거나, 듣거나, 알게 되거나, 예측하는 등의 시각이 있으며 그것을 발화로 표현하는 시각이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위시각과 발화시각이라는 두 시점 사이의 전후관계에 의해서만 시제를 파악하려 했기 때문에 지각시각과 발화시각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양자의 구분이 필요한 것은 다음 예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

(10) a. 그 사람은 어제 서울로 갔다

b. 그 사람은 어제 서울로 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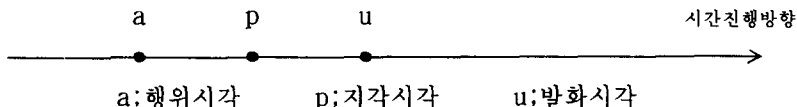
(10)a,b를 다같이 ‘그 사람이 서울로 간’ 뒤에 이루어진 발화로 보고,

11)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시간적 interval을 가진다 하더라도 시제 개념 속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시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Comrie(1976)는 이것을 blob(물방울)이 아닌 point(점)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Lyons(1977)는 시제란 다른 시점에 대한 대립적 시간지시의 어느 점에 대한 가능성(possibility of opposing one point of temporal reference to another) 위에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p.164)

종래의 주장대로 따르게 되면, 양자가 모두 행위가 발화에 앞서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과거시제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각시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면, 이 둘은 상당한 차이를 가진 표현이 된다. 즉 (10)a의 경우는 행위시각이 앞서고 지각지각과 발화시각이 일치하면서 행위시각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로 의식이 되지만, (10)b의 경우는 행위시각과 지각시각이 일치하면서 발화시각보다 앞서는 경우로 의식이 된다. 물론 (10)a의 경우도 ‘그 사람의 서울로 가는 모양’을 보고 난 뒤에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0)a가 행위의 결과나 행위시각과 발화시각과의 거리(시간적 전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표현이라면, (10)b는 행위시각과 지각시각의 일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10)a는 ‘그 사람이 서울로 간 행위’를 행위 당시에 지각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를 앞에 놓고 행위시각이 발화시각보다 앞선다고 인식이 되기만 하면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10)b는 ‘서울로 가는’행위가 이루어 질 당시에 그것을 지각했을 경우나, 장차 이루어질 것을 지각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시제와 관련된 행위시각, 지각시각, 발화시각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I〉



행위시각은 행위의 시간적 interval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행위시간 내부의 상황은 상(aspect)으로 표현될 것이지만, 시제는 a, p, u의 세 시각 사이의 전후관계로만 나타난다.(주 11) 참조) 그러나 세 시각의 전후관계가 위의 그림과 같은 순서대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위의 세 시각 사이의 전후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각의 전후관계가 국어에서 올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8가지가 된

다. 일반적으로 잠꼬대나 무의식적인 헛소리가 아닌 한 u가 p보다 앞설 수 없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국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8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前→後의 형식으로 표현함)

① $a \rightarrow p, u$ ② $p, u \rightarrow a$ ③ a, p, u ④ $a \rightarrow p \rightarrow u$ ⑤ $p \rightarrow a \rightarrow u$

⑥ $p \rightarrow u \rightarrow a$ ⑦ $ap \rightarrow u$ ⑧ $p \rightarrow a, u$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문을 살펴보자. 형태소분석에서 ‘- ϕ -’를 보충해서 넣은 것은 어디까지나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다 음의 기술에서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11) ① 그가 어제 서울로 갔다(가+았+다)

② 그가 내일 서울로 가겠다(가+ ϕ +겠+다)

③ 그가 지금 서울로 간다(가+ ϕ +ㄴ다)

④ 그가 벌써 서울로 갔더라(가+았+더+라)

⑤ 3시에 보니까 그가 4시에 서울로 가겠다(가+ ϕ +겠+더+라)

⑥ 3시에 보니까 그가 내일 서울로 가겠다(가+ ϕ +겠+더+라)

⑦ 그가 아까 서울로 가더라(가+ ϕ +더+라)

⑧ 아까 보니까 그가 지금 서울로 가겠다(가+ ϕ +겠+더+라)

※ (⑤의 경우는 발화시각이 5시, ⑧의 경우는 ‘가는 모양’을 보면서 발화한 상황이라고 상정해 두기로 한다)

위의 예문들을 통해서 세 시각 사이의 전후관계만을 두고 여기에 동원된 안팎음씨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매우 간략한 공식을 얻게 된다.

(12) a) $a \rightarrow p$; -았/었-

b) $a = p$; -ㄴ/ ϕ -

c) $p \rightarrow u$; -더-

d) $p = u$; -겠- ※ (여기에서 =는 양자가 같은 시각임을 나타낸다)

즉 ‘-았/었-’, ‘-ㄴ/ ϕ -’는 a와 p의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데에만 사용되

며, ‘-더-’, ‘-겠-’은 p와 u의 전후관계를 표현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지각시각이, 후자의 경우는 발화시각이 그 기준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어에서 시제와 직접 관련을 가진 형태소는 ‘-았/었-’, ‘-느/ㄹ-’이며 ‘-더-’나 ‘-겠-’은 본질적으로 화자의 태도(추측, 의지 및 회상)를 나타내는 서법표지(modal)이다. ‘-더-’, ‘-겠-’이 가지는 시제 표지의 기능은 그것들이 표현하는 서법표지로서의 기능 의미 때문에 부차적으로 파생된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가령 ‘회상’이라는 의미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가 저절로 과거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겠-’의 경우는 행위와 발화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판단 태도를 보여줄 뿐 행위와 발화와의 시간적 전후관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줄고,1982)

‘-더-’의 경우도 발화시각과 행위시각의 전후관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더-’가 가지는 ‘회상’의 의미는 ‘지각’에 대한 회상이지 ‘행위’자체에 대한 회상이 아닌 것이다. 다음의 예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13) a. 그 사람이 시골에서 서울로 오더라.

*b. 내가 시골에서 서울로 오더라

c. 나는 정신없이 걷고 있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극장 앞에 서 있더라.

(13) b가 어색한 것은 ‘나’의 행위가 새로운 지각대상으로 떠오를 수 없는 경우 ‘-더-’의 사용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행위에 앞서서 행위 주체는 행위 그 자체를 이미 지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새삼스럽게 자신의 행위를 지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13)c에서 보듯이 ‘나’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지각대상이 되는 경우는 ‘-더-’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더-’가 가지는 ‘회상’의 의미는 ‘행위’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행위의 지각’에 대한 회상이므로 행위 그 자체와는 시간적으

로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았/었-’과 ‘-느/φ-’를 직접시제표지형태소, ‘-겠-’, ‘-더-’를 간접시제표지형태소라고 일단 명명해 두기로 한다.

양자의 두드러진 차이는 시간부사와의 호응관계에서 나타난다. 즉 직접시제표지형태소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시제표지형태소이므로 시간부사와의 호응이 매우 엄격한 규칙 위에서 이루어진다.

(14) a. 그 사람은 어제(*지금) 서울로 갔다.(가+았+다)

b. 그 사람은 지금(*어제) 서울로 간다(가는 중이다)(가+φ+다)

(14) a,b는 ‘-았/었-’과 ‘-느/φ-’에 호응하는 시간부사가 서로 상보적이며, 배타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간접시제표지의 두 형태소(‘-겠-’, ‘-더-’)에 호응하는 시간부사는 그렇지 않다.

(15) a. 그 사람 벌써 간 줄 알았는데, 다시 알아 보니 내일 가더라.

b. 그 사람 내일 서울로 가겠다.

즉, 간접시제표지형태소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시제표지가 아니므로, 그 호응하는 시간부사의 범위가 넓고, ‘-겠-’과 ‘-더-’에 호응하는 시간부사들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16) a. 그 사람 *어제 서울로 가겠다(가+φ+겠+다)

b. 그 사람 아까 서울로 가더라(가+φ+더+다)

c. 그 사람 어제 서울로 갔겠다(가+았+겠+다)

(16) a에서 ‘*어제’가 호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겠-’과의 의미 상충에 원인이 있는것이 아니라 a=p를 나타내는 ‘-φ-’와의 의미 상충 때문이다.

(16) c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b에서 ‘-φ-’가 ‘아까’와 호응할 수 있는 것은 ‘아까’가 지시하는 시각이 ‘a=p’로서 ‘-φ-’의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의 논리에 맞지 않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17) a. 너는 이번 시험에 보나마나 합격했다.

b. 너는 이번 시험에 보나마나 합격한다.

즉 (12)에서 제안된 공식 중에서 (17)의 상황과 일치하는 것은 (12) d ($p=u$)뿐이다. 행위시각과 지각시각의 관계는 (17)에서 $p \rightarrow a$ 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17)의 ‘-았/었-’, ‘-느/φ-’가 시제형태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겠-’과 마찬가지로 행위(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 태도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경우의 ‘-았/었-’, ‘-느/φ-’는 시제형태소가 아니라 서법형태소라고 보여진다. 이 부분은 서법범주를 다루는 항목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국어의 시제체계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요컨대, 국어의 언중들이 가진 언어능력 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 왔던 것처럼 복잡한 시제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12) a,b와 같이 간단하고 단순한 장치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 ‘-더-’의 사용을 수반하는 여러 예문들에서 보았듯이, 국어의 시제는 ‘과거’나 ‘현재’와 같이 자연 시간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시각과 지각시각의 전후관계를 가리키는 범주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발화시각은 시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2.3 국어 동사의 상(aspect)에 대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줄고(1986)에서 취급한 내용을 간략히 간추려서 소개하기로 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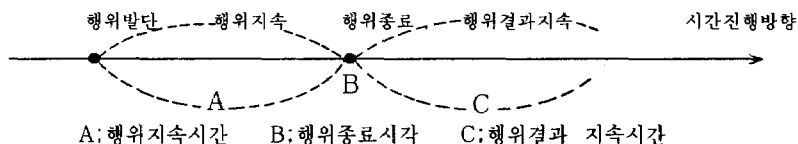
하나의 행위는 그것이 시작되는 발단 부분이 있고, 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이 있으며, 행위가 끝나는 시점이 있고 또, 그 행위의 수행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유지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행위의 결과를 유지하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행위 내부의 구성요소로 간주될 수

12) 줄고(1986)에서 다루지 못한 일부분도 논의의 포괄성을 위하여 보충하였다.

있으며, 언중은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동작상(aspect)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림 II〉



그러나 실제로는 동작동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모든 행위들이 위와같은 A,B,C의 3단계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 a. 꽃이 피다. 옷을 입다.

b. 사람이 죽다. 신대륙을 발견하다.

c. 아이가 울다. 편지를 쓰다.

d. 불빛이 반짝하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다.

(18)a의 경우는 ‘꽃이 피고’, ‘옷을 입는’행위가 시작되어 그 행위가 끝나는 순간이 있으며, 그러한 행위들의 결과로 나타난 ‘꽃이 핀’ 상태나 ‘옷을 입은’상태가 어느 기간 동안에 유지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피다’나 ‘입다’는 A,B,C의 3단계를 모두 가진 동사의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18)b의 경우는 ‘죽거나’ ‘발견하는’ 순간(B)과 ‘죽고 난’ 뒤나 ‘발견하고 난’ 뒤의 ‘죽은 상태’, ‘발견한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을 상정할 수는 있으나, B의 순간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안 죽고’, ‘발견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죽다’나 ‘발견하다’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18)b의 동사들은 A의 단계를 가지지 못한 동사들이다. 또 (18)c의 동사들은 ‘울거나’, ‘쓰기’ 시작해서 그러한 행위를 마치는 순간까지는 상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는 이미 ‘쓰거나’ ‘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다’나 ‘울다’로 표현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동사는 C의 단계를 가지지 못한 동사들이다. (18)d의 동사들은 B의 단계만을 가진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도 출발과 종료로 나

눌 수는 있겠으나 연중이 그것을 시간적 interval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결국 B만이 남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포로 나타내면 <표 I>과 같이 된다. 즉 국어에는 상과 관련하여 4가지 유형의 동사가 있으나 (transitive) 여부에 따라 통사적 특성, 즉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계약이 다르므로 결국 8가지 유형의 동사로 나눌 수 있게 된다.

<표 I>

동사의 유형	동 사 의 보 기		상 적 특 성	
	타 동 사	자 동 사	행위 지속상	결과 지속상
I 형 ABC	입다	피다	○	○
II 형 BC	발견하다	죽다	×	○
III 형 AB	쓰다	울다	○	×
IV 형 B	스치다	반짝하다	×	×

이들의 통사적 특성은 줄고(1986)에서 지적한 것처럼 ‘-고 있다’, ‘-아 있다’와의 결합 제약의 차이로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 (19) a. 옷을 입고 있다(입는 중이다)
 b. 옷을 입고 있다(입은 상태로 있다)
 c. 꽃이 피고 있다(피는 중이다)
 d. 꽃이 피어 있다(핀 상태로 있다)

타동사의 경우는 반드시 ‘-고 있다’와의 결합만이 가능하나 자동사의 경우는 ‘-고 있다’와 ‘-아 있다’와의 결합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19) a, b에서 보듯이 타동사에 결합하는 ‘-고 있다’의 의미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필자는 줄고 (1986)에서 (19) a와 같은 경우는 ‘-고₁ 있다’, (19) b와 같은 경우는 ‘-고₂ 있다’로 구분하고, 이들을 각각 ‘동시성 결합’, ‘계기성 결합’으로 명명한 바 있다.

동시성 결합이란 행위 지속의 의미를 가진 ‘-고’와 ‘있다’의 시간적 전

후관제를 나눌 수 없다는 데서 필자 나름으로 붙인 이름이다. 계기성 결합은 김홍수(1977)에서의 명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이 경우는 행위 완료의 의미를 가진 ‘-고₂’와 결과 지속의 의미를 가진 ‘있다’가 시간적으로 전후관계에 있으나 양자 사이에 다른 행위가 개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나타낸다는 뜻에서 사용한 것이다. 즉, ‘-고₂ 있다’는 행위가 수행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유지되는 상태로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19)에서 보듯이 동시성 결합의 경우는 자동사, 타동사에서 모두 ‘-고₁있다’로 표현되지만, 계기성 결합의 경우는 타동사에서 ‘-고₂있다’, 자동사에서 ‘-어 있다’로 나타난다. 즉, ‘-고₂’와 ‘-아/어-’는 결합하는 동사의 {transitive}자질에 따라 조건지어 지는 변이형태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동시성 결합은 행위지속상을 가진 동사에만 가능하며, 계기성 결합은 결과지속상을 가진 동사에만 가능해 진다. 자동사의 경우를 보자.

(20) *a. 그 사람이 죽고 있다(*죽는 중이다)

b.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c. 그 사람이 죽어 있다

*d. 그 사람이 울어 있다

e. 그 사람이 울고 있다(우는 중이다)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동사 유형에 따라 나누고, 이들 동사가 ‘-고 있다’, ‘-아 있다’와의 결합에서 받는 제약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표 Ⅱ〉

상적 특성 [transitive]	타 동 사		자 동 사	
	~고 ₁ 있다	~고 ₂ 있다	~고 ₁ 있다	~아 있다
I 형 ABC	○	○	○	○
II 형 BC	×	○	×	○
III 형 AB	○	×	○	×
IV 형 B	×	×	×	×

(0는 결합이 가능함을 ×는 결합이 불가능함을 나타냄)

위의 논의를 기초로 하고 필자가 정리한 상표지 안맺음씨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간결한 내용을 가지게 된다.

(21) ‘-았/었-’ ; 결과지속상

‘-느/ϕ-’ ; 행위지속상

따라서, 결과지속상을 가지지 못한 Ⅲ,Ⅳ형 동사에 ‘-았/었-’이 결합했다면 이 경우의 ‘-았/었-’은 상표지가 아닌 시제표지나 서법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았/었-’이 결과지속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것의 형성이 완료의 의미를 가진 맺음씨끝 ‘-아/어’와 지속의 의미를 가진 ‘있다’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줄고; 1987)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다. 현대어에 있어서도 ‘-았/었-’이 상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그것을 ‘-아 있다’로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으며, 이 점이 시제표지로서의 ‘-았/었-’과 크게 다른 점이다. ‘-았/었-’의 경우, 시제표지로서의 기능과 상표지로서의 기능에 대한 좀더 자세한 검토는 뒤에 논의되는 형태소의 결합과 범주의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 특히 ‘-았었/었었-’(이른바 대과거, 또는 단속상)을 다루는 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았/었-’의 경우와 똑같은 이유로 행위지속상이 없는 Ⅲ형 동사에 ‘-느/ϕ-’가 결합했다면, 이 경우의 ‘-느/ϕ-’는 상표지가 아닌 시제표지나 서법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동사(동작동사)의 경우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상적 특성 때문에 상표지의 결손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애초에 전제로 삼았던 세 가지의 범주, 즉 시제 상 서법이 어떠한 기술에도 다 나타나리라던 예측은 일단 수정되어야 하겠다. 즉 시제와 서법은 어떤 기술에서도 항상 나타나는 범주이지만 상은 서술어 동사의 상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문법범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지속상과 행위지속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I형 동사의 경

우는 발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들 동사에 결합한 ‘-았/었-’, ‘-느/φ-’가 상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불가능해지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어려움은 절대 없다. 그것은 어떠한 발화이든 청자나 화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 발화 상황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태동사의 상적 특성에 관한 논의는 동작동사에 비하여 훨씬 간단해진다.

상태동사는 그 자체가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는 의미 속성을 가지므로, 당연히 상태지속상을 가진다. 상태동사는 동작동사와는 달리 상태의 발단이나 종료의 범위가 그 상태동사 자체의 의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상태동사가 나타내는 현상(상태)의 지속을 표현하기 위한 별다른 어형의 결합(‘~고 있다’, ‘~아 있다’ 따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동시에 상태지속 그 자체가 모든 상태동사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요소이며, 이 요소는 본질적 속성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지를 위한 별다른 형태소(‘-느/φ-’, ‘-았/었-’ 따위)의 결합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태동사에 결합된 ‘-φ-’(‘-느-’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나 ‘-았/었-’ 따위는 상표지가 아니라 시제표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4 앞에서 필자는 ‘-겠-’, ‘-더-’가 본질적으로 시제표지가 아니라 서법표지(modal)라고 하고 이들의 의미를 각각 ‘추측’과 ‘회상’으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국어에는 ‘-느/φ-’, ‘-았/었-’에 의하여 표현되는 modality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2) a. 구름이 물려드는 걸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

b. 구름을 보니 내일은 틀림없이 비가 온다

c. 이번 시험에 너는 보나마나 합격했다.

- (23) a. 경매에 붙이기만 하면 그 물건은 내가 사겠다.
 b. 경매에 붙이기만 하면 그 물건은 내가 산다.
 c. 경매에 붙이기만 하면 그 물건은 내가 샀다.

(22)b,c와 (23)b,c는 ‘-느/φ-’와 ‘-았/었-’이 서법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a의 경우는 ‘~라고 추측한다’에 해당하는 ‘-겠-’의 의미에 (23)a의 경우는 ‘~라고 결심한다’(의지)는 ‘-겠-’의 의미에 해당하는 진술이며, (22)와 (23)을 통털어서, b(‘-느/φ-’)의 경우는 ‘~라고 단언한다’, c(‘-았/었-’)의 경우는 ‘~라고 확정(기정화)한다’는 의미로 묶일 수 있다.¹³⁾ 여기에서 우리는 서법표지로서의 4개의 안맺음씨끝을 확정지을 수 있다.

- (24) a. 직설법; ‘-느/φ-’(단정), ‘-았/었-’(확정, 기정화)
 b. 추측법; ‘-겠-’(추측, 의지)
 c. 회상법; ‘-더-’(회상)

직설법의 각 형태소는 발화 내용이 담고 있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라는 동질적 기준에 바탕을 둔 판단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에 대해, 회상법의 ‘-더-’는 개연성을 가진 사건이 아닌,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정황에 대한 회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직설법의 경우는 최초의 지각 시각과 발화시각이 일치하는 (p=u)반면에, 회상법의 경우는 최초의 지각시각이 반드시 발화시각에 앞서는 (p→u)것이다.

또 직설법의 각 형태소끼리는 동일범주(서법범주)내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은 이들이 서로 동질적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리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 13) 줄고(1982)에서는 ‘-겠-’이 가지는 ‘추측’과 ‘의지’라는 의미는 2원적인 것이 아니라 1원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보았다. (22), (23)에 나타난 서법표지로서의 ‘-느/φ-’, ‘-았/었-’이 각각 ‘단언’ 또는 ‘확정’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추측’과 ‘의지’가 1원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간접적인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즉 ‘-겠-’ ‘-느/φ-’, ‘-았/었-’은 개연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 차이를 보이며, ‘추측’과 ‘의지’는 개연성을 일으키는 행동주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는 (22)와 (23)에 나타난 추측(의지), 단정, 확정(기정화)의 의미가 얼마만한 객관적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modality와 하나의 진술 사이의 관계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진술은 명제(proposition)와 그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이루어져 있다. 국어의 안맺음씨끝에 의하여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는 '회상'과 같이 명제의 진위(眞僞)여부에 대한 판정과 무관한 것도 있으나 추측, 단정, 확정과 같이 명제의 진위에 대한 가능성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태도는 명제 자체의 당위성이나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제에 의하여 표현되는 현상을 둘러싸고, 그 진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명제 외적인 여러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 안맺음씨끝에 의하여 표현되는 화자의 태도는 논리적 가능성이나 필연성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modality가 아니라, 바논리적이고 주관적인 화자의 심리상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modality인 것이다. 그러므로 명제의 진위에 대한 판단 태도도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 기준 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22), (23)의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더 강한 가능성의 판단 위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볼 뿐이다.

둘째는, '-았/었-', '-느/ϕ-'가 시제표지, 상표지, 서법표지로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면, 그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구분하여 기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언어가 발화 상황(또는 문맥)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본다면 그들을 각각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우리는 이들이 각각 구분될 수 있는 발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25) a. 그 사람 언제 왔니? 응, 어제 오전에 왔어.

b. 그 환자는 어떻게 됐나? 응, 지금 병원에 갔어.

c.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좋아, 내가 맡았어. 내게 맡겨줘.

(26) a. 그 사람 언제 오니? 지금 저기 온다.

b. 철수는 뭘 하니? 저쪽 방에서 공부한다.

c. 그 사람 정말 올까? 오고말고, 내일이면 온다.

(25)의 ‘-았/었-’과 (26)의 ‘-느/φ-’는 각각 a,b,c에서 시제, 상, 서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범주들은 언제, 어떻게 들과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의 결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어떠한 발화라 하더라도 발화자의 의도 속에는 ‘-았/었-’, ‘-느/φ-’와 관련하여 시제나 상이나 서법중 어느 하나에 맞춘 초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술은 언중의 언어 능력 속에 시제, 상, 서법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2.5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의 세 가지 문법범주를 설명하고 이들 각각의 문법범주 안에서 국어의 안맺음씨끝이 수행하는 의미를 규정하였다. 그것은 각각 (12) ; 시제, (21);상; (24);서법 등과 같이 간략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었다.

지금부터는 이들 형태소가 그들끼리의 결합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속한 범주의 의미를 표현하며 또 문법범주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형태소의 결합과 관련되는 논의로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대과거’, 또는 ‘단속상’이라고 표현되는 ‘-았었/었었-’의 문제일 것이다. 이것을 ‘대과거’라고 명명한 것은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안맺음씨끝의 의미기능을 시제라는 하나의 범주만으로 파악하던 시대에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과거시제표지의 ‘-었-’이 중복됨으로써 ‘과거의 과거’라는 형태소의 의미와 ‘-었었-’이라는 형태소의 중복이 서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의 언어 현상을 통해서 ‘-었었-’으로 표현되는 시각이 ‘-었-’으로 표현되는 시각보다 반드시 앞서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었었-’과 ‘-었-’이 시간적 변별성을 가지지 못

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이 견해는 형태소의 형태에만 집착한 도식적, 피상적 견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대과거’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 이른바 ‘단속상’이라는 견해이다. 남기심(1978)에 실려있는 일련의 논의들은 종래의 시제개념을 부인하고 상개념으로써 시제에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기초는 필연적으로 ‘-었었-’을 역시 상이라는 하나의 범주만으로 파악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것이 곧 ‘단속상’이라는 주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대과거’가 -었었-을 두 개의 ‘-었-’의 결합으로 본 반면에 ‘단속상’은 그것을 이미 굳어진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를 뿐, 그것을 평면적 단일 범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다. ‘단속상’이란, 요컨대 ‘어떤 상태의 지속이 끊긴 상태’(남기심, 1978, 136)이며 ‘어떤 동작이 끝난 결과의 상태가 뒤로 이어지지 않은 것’(전계서 139)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견해는 시제의 부정이라는 기초 위에서 파악된 견해이므로 언어 현실과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으며, 실제로 몇몇의 반론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단속상’에 대한 반론을 편 몇몇의 작업들도 ‘단속상’의 주장과 동일한 평면적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이 주장의 모순이나 무리를 얻어 자료의 검증을 통하여 지적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단속상’이라는 주장 자체가 가진 무리나 이에 대한 반론들의 실패는 동사 자체의 상적 특성에 대한 고찰의 미흡, 문법범주의 평면적(또는 단선적)파악이라는 두 가지 지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이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동사 자체의 상적 특성과 ‘-었었-’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었었-’과 ‘-었-’을 서로 변별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동사와 그렇지 못한 동사의 구분에 있다.

(27) a.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부산에 갔었다.

b.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죽었었다.

- c. 두 형제는 어렸을 때 많이도 싸웠었다.
- d. 두 형제는 어렸을 때 많이도 싸웠다.
- e. 나는 학생 때도 키가 참 작았었다.
- f. 나는 학생 때도 키가 참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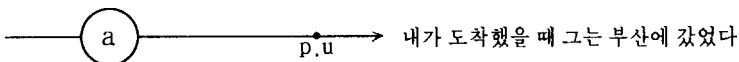
(27)a,b의 ‘가다’, ‘죽다’는 ‘-었었-’과 ‘-었-’의 사용에서 서로 변별성을 보이는 동사들이다. 따라서, ‘-었었-’을 쓸 자리에 ‘-었-’을 쓰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표현이 어색하거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27)c,d 와 (27)e,f에서 보듯이 ‘싸우다’와 ‘작다’는 ‘-었었-’이나 ‘-었-’중에서 어느 것과 결합해도 양자 사이에 의미의 변별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 동사의 상적 특성이 ‘가다’, ‘죽다’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기술한 상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보면 ‘가다’는 I형 동사, ‘죽다’는 II형 동사로서 모두 결과지속상을 가진다. 그러나, ‘싸우다’는 III형 동사로서 행위지속상을 가지지만 결과지속상을 가지지 않는다. ‘작다’는 상태동사로서 상표지를 위한 특별한 형태소가 필요없는 동사이다.

요컨대, 결과지속상을 가지지 않는 III,IV형 동사와 상태동사는 ‘-었었-’과 ‘-었-’의 결합에서 양자 사이의 변별성을 가지지 못한다. 즉 이 경우의 ‘-었었-’에서 하나의 ‘-었-’은 일종의 잉여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시사를 얻게 된다. (27)a의 경우를 예로 들로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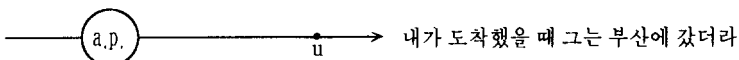
‘내가 도착했을 때’는 ‘그가 부산으로 가는’ 행위가 끝나고 그 결과가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것은 결과지속의 상표지 ‘-았-’에 의하여 표현된다. 또 ‘내가 도착하고’ ‘그가 부산으로 간’ 상태가 유지되던 일련의 시간적 상황의 덩어리는 그러한 상황의 덩어리를 지각하고 발화하고 있는 지금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서 있으므로, 그것은 시제상 a→p.u에 해당하며 이것은 시제표지인 또 하나의 ‘-었-’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그가 부산에 가 있고’ ‘내가 도착한’ 것을 지각한 시각은 그것은 다시 떠올린 발화시각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도착하고’

‘그가 부산에 간’시각과 지각시각이 같은 경우의 진술인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부산에 갔더라’와 차이가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림 III〉



a: ‘내가 도착했을 때’이며, ‘그가 부산에 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때.



a, p; 내가 도착했을 때 이며, ‘그가 부산에 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때이며, 내가 그것을 지각하게 된 때.

위의 논의를 통해서 ‘-었었-’을 ‘-었₁었₂-’로 보았을 때 ‘-었₁-’은 상표지, ‘-었₂-’는 시제표지임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었₁-’이 계기성 결합으로 대체되었을 때, (즉 자동사의 경우 ‘-어있-’으로, 타동사의 경우 ‘-고₂있-’으로 대체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 (28) a.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죽었었다.
 b.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c. 내가 만났을 때, 그는 빨간 옷을 입었었다.
 d. 내가 만났을 때, 그는 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동사의 상에 따른 통사적 특징, 즉 ‘-아 있다’, ‘-고 있다’와의 결합제약을 밝힌 <표 II>에서의 논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27)c, d나 (27)e, f에서 보듯이 결과지속상이 없는 동사에 ‘-었₁-’이 결합했을 경우는 의미 변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단순한 잉여 형태로 머무르고 만다. 요컨대 ‘-었었-’은 결과 지속상 표지인 ‘-었₁-’과 a→p의 시제표지인 ‘-었₂-’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각의 ‘-었-’들이 상범주

와 시제범주에서의 의미기능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어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었었-’이 시제범주와 상범주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속상’이라는 주장 그 자체에 이미 드러나 있다. 즉, ‘과거의 어느 사건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 먼저의 사건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거나 말하는 이의 심리적인 간격의식이 먼저의 사건과 현재의 상황 사이를 일단 단절된 것으로 표현할 때 쓰이는 것’(남기심, 1978. 142)이라는 주장은 그것이 시제범주를 부인하는 기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바로 시제 그 자체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과거의 어느 사건과 현재의 상황은 그것이 하나의 시간선상에 있는 것이다. 양자가 ‘심리적 간격의식’ 때문에 ‘단절된’ 것으로 표현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과거의 어느 사건과 현재의 상황이 하나의 시간선상에서 두 개의 시점(point)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 두 시점을 관련지우는 것은 시간적 전후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적 전후개념은 시제의 본질이다. 시간선상에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덩어리는, 그 덩어리 내부의 문제의 경우는 상으로 표현되지만 그 덩어리와 단절된 또 하나의 다른 덩어리와 관계는 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제로 표현되는 것이다.

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안맺음씨끝이 각각의 문법범주를 가지고 있으며, ‘-었었-’에서처럼 동사 자체의 상적 특성과 안맺음씨끝의 결합이 온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잉여형태로서 의미의 변별에 참여하지 못함을 보았다. 이제 형태소의 결합과 이에 따른 문법범주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차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를 정리해 본다.

첫째, 형태소의 배열 순서는 상표지, 시제표지, 서법표지의 순으로 되어 있다.

상과 시제의 배열 순서는 ‘-었었-’에서 논의된 바와 같다. 서법표지가 맨 나중에 오는 것은 그것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명제 내용의 일부인 상과 시제가 확정된 다음에 배열된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동일한 범주 안에서 상호 배타적인 의미를 가진 두 형태소는 공존(co-occurrence)하지 못한다. 따라서, ‘-았/었-’과 ‘-느/φ-’는 당연히 동일한 범주안에 공존하지 못한다. 그러나, 서법의 ‘-더-’와 ‘-겠-’은 공존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시제에서 $a \rightarrow p$ 이면서 동시에 $a=p$ 일 수가 없고, 행위가 지속되면서 그 행위의 결과가 동시에 지속되는 경우란 있을 수 없지만, 서법에서는 추측했던 사실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는 동사 자체의 상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즉 결과지속상이 없는 동사는 상표지 ‘-았/었-’과 결합해도 의미의 변별력이 없으며, 행위지속상이 없는 동사는 상표지의 ‘-느/φ-’와 결합할 수 없다.

본고의 논의에서 나타난 국어의 시제, 상, 서법체계는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12) a, b, (21), (24)에서 정리된 것 이상으로 복잡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간단한 체계도 안맺음씨끝 사이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상황에 적절히 구사될 수 있는 표현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어형과 의미는 상상보다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다. 이제 여러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형들을 보기로 제시하고 각각의 안맺음씨끝이 수행하는 범주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I 형 동사〉

○추측 회상법

A T M M

- | | |
|----------------------|-------------|
| ① 그들이 갔을 때는 벌써 많은 꽃이 | 피 었 었 겠 더 라 |
| ② 지금도 거기에는 많은 꽃이 | 피 었 φ 겠 더 라 |
| 옛날에는 거기에서 많은 꽃이 | 피 ○ 었 겠 더 라 |
| ③ 지금 거기에는 꽃이 한창 | 피 φ φ 겠 더 라 |

○ 회상법

A T M M

- | | |
|----------------------|-------------|
| ① 우리가 갔을 때는 벌써 많은 꽃이 | 피 었 었 ○ 더 라 |
| ② 지금 거기에 꽃이 한창 | 피 었 ϕ ○ 더 라 |
| 알고 보니 옛날에는 여기에서도 꽃이 | 피 ○ 었 ○ 더 라 |
| ③ 지금 거기에 꽃이 한창 | 피 ϕ ϕ ○ 더 라 |

○ 추측법

- | | |
|----------------------|-------------|
| ① 그들이 갔을 때는 벌써 많은 꽃이 | 피 었 었 겠 ○ 다 |
| ② 지금 거기에 꽃이 한창 | 피 었 ϕ 겠 ○ 다 |
| 옛날에는 여기에서 많은 꽃이 | 피 ○ 었 겠 ○ 다 |
| ③ 지금 거기에 꽃이 한창 | 피 ϕ ϕ 겠 ○ 다 |

○ 직설단정법

- | | |
|----------------------|-------------|
| ① 우리가 갔을 때는 벌써 많은 꽃이 | 피 었 었 ○ ϕ 다 |
| ② 지금 여기에 많은 꽃이 | 피 었 ϕ ○ ϕ 다 |
| 옛날에는 거기에 많은 꽃이 | 피 ○ 었 ○ ϕ 다 |
| ③ 지금 여기에 꽃이 한창 | 피 ϕ ϕ ○ ϕ 다 |

○ 직설확정법(기정화)

- | | |
|------------------|-------------|
| ① 보나마나 지금 거기엔 꽃이 | 피 ○ ϕ ○ 었 다 |
| ② 내일만 되면 그 꽃은 벌써 | 피 ○ ○ ○ 었 다 |

〈Ⅱ 형 동사〉

○ 추측 회상법

A T M M

- | | |
|--------------------|-------------|
| ①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벌써 | 죽 었 었 겠 더 라 |
| ② 지금도 거기에 많은 사람이 | 죽 었 ϕ 겠 더 라 |
| 옛날에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 죽 ○ 었 겠 더 라 |
| ③ 지금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 죽 ○ ϕ 겠 더 라 |

○ 회상법

①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벌써

② 지금 저기에 사람이

옛날에 여기에서 사람이

③ 이번 전쟁에 많은 사람이

○ 추측법

①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벌써

②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사람이

옛날에는 여기에서 사람이

③ 지금 전쟁터에서는 많은 사람이

○ 직설 단정법

①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② 지금 여기에 사람이

옛날에 여기에서 사람이

③ 전쟁터에서는 많은 사람이

○ 직설 확정법(기정화)

① 보나마나 그는 지금쯤

② 내일이면 그는 벌써

〈Ⅲ 형 동사〉

○ 추측 회상법

① 어릴 때 그들은 무척 자주

② 지금도 그들은 무척 자주

○ 회상법

① 내가 갔을 때 그들은 벌써 다

② 내가 갔을 때 그들은 한창

A T M M

죽 었 었 ○ 더 라

죽 었 ϕ ○ 더 라

죽 ○ 었 ○ 더 라

죽 ○ ϕ ○ 더 라

죽 었 었 겠 ○ 다

죽 었 ϕ 겠 ○ 다

죽 ○ 었 겠 ○ 다

죽 ○ ϕ 겠 ○ 다

죽 었 었 ○ ϕ 다

죽 었 ϕ ○ ϕ 다

죽 ○ 었 ○ ϕ 다

죽 ○ 느 ○ ϕ ㄴ 다

죽 ○ ϕ ○ 었 다

죽 ○ ○ ○ 었 다

A T M M

싸 우 (였) 었 겠 더 라

싸 우 ϕ ϕ 겠 더 라

싸 우 (였) 었 ○ 더 라

싸 우 ϕ ϕ ○ 더 라

○추측법

A T M M

① 어릴 때 그들을 무척 자주

싸 우 (있) 었 겠 ○ 다

② 지금도 그들은 무척 자주

싸 우 ∅ ∅ 겠 ○ 다

○직설단정법

① 어릴 때 그들은 무척 자주

싸 우 (있) 었 ○ ∅ 다

② 지금도 그들은 무척 자주

싸 우 ∅ ∅ ○ ∅ ㄴ 다

○직설확정법(기정화)

① 보나마나 그들은 지금 또

싸 우 ○ ∅ ○ 었 다

② 내일이면 그들은 또

싸 우 ○ ○ ○ 었 다

〈Ⅳ형 동사〉

○추측회상법

A T M M

① 철수가 순이의 어깨를 툭

치 (있) 었 겠 더 라

② 철수가 순이의 어깨를 툭

치 ○ ∅ 겠 더 라

○회상법

① 알고보니 그가 내 어깨를 툭

치 (있) 었 ○ 더 라

② 그때 내가 순이의 어깨를 툭

치 ○ ∅ ○ 더 라

○추측법

① 힘이 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치 (있) 었 겠 ○ 다

② 힘이 센 아이가 약한 아이들

치 ○ ∅ 겠 ○ 다

○직설단정법

① 힘이 센 아이가 약한 아이들

치 (있) 었 ○ ∅ 다

② 힘이 센 아이가 약한 아이들

치 ○ ∅ ○ ∅ ㄴ 다

○직설확정법(기정화)

① 보나마나 지금 약한 아이를

치 ○ ∅ ○ 었 다

② 내일이면 반드시 너를

치 ○ ○ ○ 었 다

〈상태동사〉

① 그의 성적은 참

죽 앓 겠 더 라

② 그의 성적은 참

중 0 겹 더 라

○ 회상법

① 그의 성적은 참

중 앞 ○ 더 라

② 그의 성적은 참

중 ϕ $\bigcirc$ 더 라

○ 추측법

① 그의 기분이 참

중 앞 겹 ○ 다

② 그의 기분이 참

중 ϕ 겹 $\bigcirc$ 다

○ 적설단정법

① 나의 기분이 참

중 앞 $\bigcirc \phi$ 다

② 나의 기분이 참

중 0 0 0 다

○ 직설확정법 (기정화)

① 지금 너의 태도는 참

중 ϕ $\bigcirc$ 앞 어

A ; aspect, T ; Tense, M ; modality

0 : 해당이 없는 부분

①: 변별력이 없는 잉여의 '-았/었-'

※ 상태동사에는 해당 상표지가 없으므로 생략함

위의 예문들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어형들은 가급적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제시해 보려고 애쓴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외형상의 형태는 같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형태소 ‘- ϕ -’의 존재를 넣어서 검토해보면 그 형태소의 배치 구조나 상황에 따라 쓰이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三 結 論

지금까지 본고는 국어 안팎음씨끝의 범주별 의미와 그들의 결합을 통한

범주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를 펼쳐 왔다. 본고의 논의는 종결형에서의 안맺음씨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형형에서의 안맺음씨끝에 대한 논의가 다 이루어져야 하나의 시안(試案)으로서 완성이 될 것이다.

관형형은 종결형의 기저구조(underlying structure)에서 유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본고에서의 전개 양상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의 살던 고향→*내가 고향에 살더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주어 실현의 제약은 관형형과 종결형이 1:1의 대응을 바로 보여주는지는 않는다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대신한다.

- ① 국어에는 안맺음씨끝과 관련하여 시제, 상, 서법의 세 가지 문법범주가 별개로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통합될 수 없다.
- ② 안맺음씨끝은 '-느/φ-', '-았/었-', '-겠-', '-더-'의 넷이다.
- ③ 국어의 시제는 행위시각, 지각시각, 발화시각의 3가지 시점의 전후 관계에 의하여 표현된다.
- ④ 국어의 동사는 그 상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에 따라 8가지로 나누어지며, 특히 상적 특성은 범주표지와 결합 가능성을 부여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상태동사는 상태지속상만을 가진다.
- ⑤ 상호 결합된 안맺음씨끝은 각각의 범주 의미를 나타내며 동일한 형태의 중복은 그들이 각각 다른 문법범주에 속함을 나타낸다.
- ⑥ 각각의 안맺음씨끝이 문법범주 안에서 수행하는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

범주 형태소	Aspect	Tense	Modality
-았/었-	결과지속	행위시각→지각시각	확정 (기정화) (직설 확정법)
-느/ϕ-	행위지속	행위시각=지각시각	단정 (직설단정법)
-겠-		지각시각=발화시각	추측 (의지) (추측법)
-더-		지각시각→발화시각	회상 (회상법)

참 고 문 헌

- 강복수 (1982) 국어문법사연구(증보판). 형설출판사.
- 고영근 (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탐출판사.
- 김승곤 (1978) 상태지속 연결어미 {아}에 대하여. 허웅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 김영희 (1981) 회상문의 인칭제약과 책임성. 국어학 10집.
- 김종태 (1982) 형태소 「-겠-」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85) 15세기 국어의 안맺음씨끝 「-아/어-」, 「-가/거/나-」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12집.
- (1986) 「-아 있다」, 「-고 있다」 구문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13집.
- (1987) 15세기 국어의 「-아잇-」 결합어형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14집.
- 김차균 (1980) 국어 시제형태소의 의미. 한국 169집.
- 김홍수 (1977) 제기의 「-고」에 대하여. 국어학 5집.

- (1978) 동시구문의 양상. 국어학 7집.
- 나진석 (1971)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 남광우 (1971) 고어사전. 일조각.
- 남기십 (1976) 국어의 시제 (한국언어학회 공동토론회 요지). 언어 1·2.
- (1978)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탐출판사.
- 노대규 (1979) 상황소와 한국어의 시제. 문법연구 4집.
- 서정수 (1976) 국어 시상형태의 의미분석 연구 문법연구 3집.
- (1977) 「겠」에 관하여. 말 2집.
- 성광수 (1976) 존재동사 「있다」에 대한 재고. 강복수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 성기철 (1972) 어미 「-고」와 「-어」에 대하여. 국어교육 18~20 합병호.
- (1974) 경험의 형태 「-었-」에 대하여. 문법연구 1집.
- 성낙수 (1975) 한국어의 회상문 연구. 문법연구 2집.
- 신창순 (1984) 국어문법연구. 박영사.
- 이기갑 (1981) 15세기 국어의 상태지속상과 그 변천. 한국 173.174 어우름.
- 이기동 (1978) 조동사 「있다」의 의미 연구. 허웅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 이승녕 (1970)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승욱 (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정민 (1975) 언어행위에 있어서의 양상구조. 현대국어문법(계명대논문집). 계명대 출판부.
- (1976)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언어 1·1.
- 임홍빈 (1975) 부정법 {어}와 상태진술의 {고}. 국민대학 논문집 제8집.
- 정문수 (1984) 상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 풀이씨의 분류. 문법연구 5집.

- 최현배 (1980) 우리말본(여덟번째, 고쳐 펴냄). 정음사.
- 한동완 (1986) 과거시제 「엇」의 통시적 고찰. 국어학 15집.
- 허 응 (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1979) 17세기 국어 때매김법 연구. 한글 164호.
- (1987)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 홍기선 (1984) 한국어 풀이씨의 상적 특성. 문법연구 5집.
- 황병순 (1982) 「있다」의 복합구문과 조동사 「있다」. 조규설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 (1985) 국어 양상구성소에 대하여. 천시권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 (1987) 국어의 상포시 복합동사 연구. 형설출판사.
- 野間秀樹 (1988) 〈하갸다〉의 研究. 조선학보 제129집.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vol.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thews. P. H. (1974)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